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 대안예수교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성근

'94 하기전도대 파송

교역자 참가하지 않고 지원교회 일정에 맞추어 활동 8월중 각 교구별로 파송예배 전도대는 오로지 전도활동에 주력

매년 실시하는 하기전도대가 금년에도 8개처에 파송된다. 이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파송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은 지난 7월 23일로 끝났다.

이번 하기전도대는 그동안의 하기전도대의 활동과 그 결과를 평가하여 지원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그동안 하기전도대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교회에 가서 전도활동 및 기타 활동을 전체적으로 수행하자 지원 교회 교역자나 교인들이 수동적이 됨으로 인해 전도활동이 끝난 후 그 지원 교회와

전도를 통해 얻은 사람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여름철에 한번 스쳐지나가는 연례행사와 같은 경우가 있어왔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년에는 각 교구, 부서에서 지원 교회 중에서 택하고 모든 계획과 준비, 진행을 교구 자체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며 교역자는 참가하지 않고 교구식구 중에서 전도팀을 편성, 자체 운영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원 교회 교역자와 사전에 프로그램을 공동계획하고 지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전도활동을 하되 하기전도팀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전도대의 모든 활동은 현지 지원 교회의 담임교역자의 지도에 따라 협력하되 전 지역주민에게 전도하는 일에 주력하고 여름성경학교나 주교교사훈련이 필요할 경우에도 전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춘천소년원을, 대학부는 병원전도팀을, 청년부는 군부대전도팀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도위원회는 하기 전도대의 모든 전도활동 원칙과 일과에 따른 주의사항들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이미 모든 교육을 끝낸 상태이다.

전도대 파송도 각 교구 단위로 교구 모임 시간을 통해 하게 되는데 파송일은 8월 중에 각 형편에 맞추어 교구별로 정하게 된다. 모든 전도대 일정이 마쳐지면 전도대대가 모여 전도보고대회를 하며 다음 해 전도대 파송 계획을 준비하게 된다.

이상 고은과 가뭄으로 농촌이나 도심의 모든 마음들이 고갈되어 있는 이때에 파송되는 전도대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도록 기도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충현복지재단 임원 개신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당회는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했다.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 신성중(신임)
- 이 사 : 이태규 윤명식 조선근 오태희 김영재 김자생 우기전 노광현 오진국 손동운 강은원 (이상 유임)
- 감 사 : 김경철 이 훈(이상 유임)

금요집회 한달동안 쉬기로

금요집회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달동안 쉬게 된다. 여름 계절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각종 여름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여름 한달동안 금요집회를 쉬기로 했다. 금요집회는 8월 26일에 다시 시작된다.

직원모집

금번 교회사무국에서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참신한 일꾼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직종 : 교환직(교환사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으로서 새례교인)
2.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 첨부), 교환사 자격증 사본
3. 제출기한 : 7월 31일
4. 제출처 : 충현교회 사무국 총무과 (552-8200, 교환 402)

파송교회 현황

파송교회	주소	교인수		지원교구	
		어른	어린이	교구	전도회
북성교회	강원 영월 남면 북쌍리	31	51	4	루디아
반석교회	강원 원주 반곡동	15	21	12	에스더
신망리제일	경기 연천 연천면 사조리	37	57	14	바울
신망애교회	경기 여주 강천면 도전2	27	50	17	에스더
미산교회	강원 평창 미탄면 울치	20	27	19	베드로
군교회	보령 제35사단 교회			청년1부	현상민
춘천소년원	강원도 춘천시			고등부	윤삼중
병원	부산, 마산지역 소재 병원			대학부	장봉생

'94 예수사랑 큰잔치를 진행하면서



믿음으로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김재명

(장로, '94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위원회 위원장)

94년도 어김없이 예수사랑의 출발 신호가 울려 퍼졌다. 이 잔치를 위하여 전행본부에서는 태신자를 작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한다. 주님을 저국해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은 각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글을 쓰고 있다.

정말이지 예수사랑 운동은 낭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사탄과의 싸움이다. 전행본부는 그 싸움을 더욱 가까이서 경험하는 현장이라고 느껴진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권

세를 주셨으니 전도는 하면 된다는 확신에 따라 전진하고 있다.

전행부에서는 7월 둘째 주일까지 각 구역의 태신자를 작성하게 했다. 태신자는 믿음으로 영태한 사람을 의미한다. 죽어있는 영혼을 마음에 영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혼이 깨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꼭 데려올 사람만 작성하지는 유혹(?)에 주춤한다. 그러나 그날 데려와야 하는 사람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태신자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날 꼭 데려와야 하겠다는 대상자가 불과 이 정도인가? 한 주간 정도의 전도집회가

준비되고 16일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인데 그런 믿음으로 영태해야 할 영역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가진 꿈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꿈 이상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도 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의 모든 순서는 새로 맺게될 믿음의 행제와 자매들을 위한 준비로 바쁘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전도위원회 실의 열기는 대단하다. 수시로 모여서 기도하고 보완하고 의논하는 모습들은 장로님들이 많다. 전행부는 모든 부서 장을 만나 협력하며 특히 홍보, 동원,

전행본부는 장사 접의의 잠정에 바쁘다. 교육분과에서는 충현만나를 통한 성도들의 전도교육의 교안을 제작하며, 찬양분과는 금요집회 때 같은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는 운동과 새벽기도회와 기도부탁, 권사님들과 앞으로 교회 전체가 실시하는 23시간 기도시간에 기도제목을 부탁, 주간활동을 점검, 부서별 진행 상황을 통계 보고 받고 기도회를 지원, 당일 일시불란한 행사의 진행에 대한 준비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충현교회가 40년의 짧은 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성장 한 원인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땀과 노력을 쏟는 전도의 운동에 협력한 때문이다. 없던 대로 할 때마다 성장의 비전을 가지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애끼지 않은 우리 모두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일 것이다.

예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인 믿음으로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충현의 전통이 '94 예수사랑 큰잔치에 살아 나기를 기대한다.

구

약에 있는 다니엘서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흔히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는 인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야말로 말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시의 근원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요한이 기록은 했지만 요한의 계시록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계 1:1).

법이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로서 로마 정권과의 투쟁을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묵시적인 방법,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방법은 자유주의적 해석으로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자체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미래적인 해석방법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는 대종말 전후 사건, 특히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한 사

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2-3장), 일곱 인제향(6-7장), 일곱 대접재앙(15-18장), 일곱 가지의 인격들(12-14장), 일곱 가지의 마지막 일들(21-22장)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등 하늘의 숫자 3과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사시사철) 땅의 숫자 4를 합한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칠복이 나옵니다.

첫째로 말씀의 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1:3) 둘째로 죽음의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14:13) 셋째로 회개의 복입니다. “깨어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16:15) 넷째로 천국의 복입니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19:9) 다섯째로 부활의 복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20:6) 여섯째로 행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22:7) 일곱째로 성결의 복입니다. “뚜루마기를 빼는 자가 복이 있다”(22:14)

충현강단



1. 계시의 기원

계시란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

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인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한다고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기 때문입니다(잠 29:18).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이며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계시를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떠나 세상으로, 세속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계시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즉 계시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마침내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지 않고는 그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종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 계시의 목적

본문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했습니다. 계시의 목적은 바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데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슬기로운 다짐 치려처럼 기를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본문에 보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여기 ‘속히’라는 말은 긴박성을 뜻합니다. 광경에 급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짐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번, 짐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진다고 한 지가 수세기까 지나도 왜 아직 안오시느냐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장표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최후의 천년과 같고 천년에 하루와 같다”(벧후 3:6)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요한계시록의 해석방법

첫째로 영적인 해석에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은 광경에 신비하고도 우회적인 해석방법인데 문제는 인위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둘째는 과학적인 해석방

요한계시록 서론

(계 1:1-3)



신성종

<목사·당회장>

권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제스틴, 터틀라안, 이레나우스 등 많은 복음주의적 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의 계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는 교회사적인 해석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차림 때까지의 일어난 모든 사건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핸드슨 같은 성경학자들이 이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칼빈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해석방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해석방법이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종합적인 해석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즉 교회사적인 해석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는 영적인 해석과 미래적인 해석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즉 1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해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는데 첫째는 ‘내 본 것과’ 과거제시입니다(1장). 둘째는 ‘이제 있는 일과’ 현재의 계시입니다(2-3장). 셋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즉 미래의 계시입니다(4-22장).

4. 계시록의 구조적 특징

계시록에는 구조적인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적인 특징과 문법적인 구조로서의 반복입니다. 먼저 숫자적인 특징으로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5. 복있는 사람

먼저 1장 3절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대물은 복과는 다릅니다. 왜 축복을 주십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은 가깝다는 말로 시작해서(1:3) 가깝다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22:10). 우리는 정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읽는 자라는 말은 원문에 ‘아나기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위(上)를 향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참된 복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는 “듣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벧전 1:23).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행 10:44).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에 거기서 영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키는 말은 ‘테데오’인데 이 말은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성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죽음을 맛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요 8:31).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시험받을 때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좁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부분을 읽든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음의 종류를 여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벧전을 신앙(철학적인 신앙), 전통적 신앙(부흥회 때만 온혜만), 선인장 신앙(주일날 하루는 신앙에 있는 것 같은데 6일 동안은 간 곳 없는 신앙), 바깥개비 신앙(어려움이 있을 때만 메달리는 신앙), 해바라기 신앙(행동할 때만 믿는 신앙), 전전후 신앙입니다. 우리는 앞의 다섯 가지 종류의 신앙에 해당되면 안되고 전전후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전후 신앙은 어떤 악조건하에서도 믿는 신앙입니다. 흥분할 때는 흥분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믿고, 역경에 처할 때는 역경에 처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때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참 믿을, 전전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를 마치며 / 대학부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윤 정 훈
(대학부 회원)

충현 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7월 4일~7월 8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충현기도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는 예년과 다른 점들로 인해 특징적인 수련회로 우리에게 기억되었다. 먼저 수련회 기간이 7월 첫주로 학원이나 여러 방학 계획들과 겹쳐지는 시간대여서 수련회 기간중 유독 출퇴근 자가 많았고 또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번 수련회는 지난 수년간의 성경 권별 강해 수련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강해 수련회로 진행되어 좀더 한 주제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강해와 GBS가 이루어졌다. 또 면려회에서 수련회 기간 중에 시계 착용을 금하고 기도원 벽시계를 가림으로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 진행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개념을 경험하는 수련회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회는 18개 팀이 구성됨으로서 작은 인원과 알차고 풍성한 교제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중 따끈따끈한 수련회 신문들 통해 전날의 이벤트와 강의들을 한눈에 봄으로써 수련회의 다이나믹한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과 객원기자들의 밤샘작업과 원고 집필의 헌신이 있었다. 또 의료 봉사팀인 'שלמחן 물가'와 수련회 자원봉사자인 도우미와 섬김이들의 말없는 수고 또한 수련회를 풍성한 은혜찬치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다. 이번 수련회 기간은 여름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일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았었다. 결국 임원들은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구상해야 했다. 비가 올 경우와 날씨가 맑을 경우로. 하지만 이것은 임원들의 악한 믿음에서 나온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는 작은 몸짓이었다. 하지만 우리네 작은 몸짓도 한숨 쉬인 걱정들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풍성케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한치의 장애도 없이 날씨는 우리를 도왔다. 개회식 프로그램인 열려라 수련회에서는 화창한 날씨로 우리를 반겨주었고, Crying Game에서는 서늘한 날씨로, 도전 120분에서는 덥지만 맑은 날씨로 수련회 하일라이트였던 '홀'에서는 맑은 구름 그늘로 우리들을 덮어 주셨고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상쾌함을 더해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하

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음을 고백케 하셨다.

수련회 기간중에 진행된 GBS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이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주님의 뜻에 대한 이해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분의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통치에 우리의 지성이 무릎을 꿇는 시간이었다. 셋째날 GBS를 위해서는 특별히 이준경 선생님과 팀장 조장들이 열면 GBS 예비 공부가 있어 최선을 다해 GBS에 임하는 모습들이 사뭇 진지했다. GBS의 내용에 이어 강해진 저녁 사경회에서는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를 돕는 말씀들이 전해졌고 칠판을 이용해 도식화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강해 내용을 설명하시는 열심도 보이었다. 또한 강해 후에는 짧은 질의 응답시간도 있었다.

저녁 집회시간에는 시심나와 울림소리와 함께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되는 모습과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두 찬양팀의 독특한 성격과 찬양선율이 조화를 이뤄 더욱 알찬 찬양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셋째날과 넷째날에 임한 찬양의 영은 모든 회원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음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느끼게 했다.

또 셋째날 밤에는 특별히 모든 지체들이 부둥켜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지체간의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며 회개와 감사의 눈물들을 맛보게 하셨다. 수련회 기간중에 팀별 모임, 학년 모임, 개인기도, 팀별 나눔 등으로 하루의 일과들이 정리되었고 아침 시간에는 전체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했다.

넷째날 당회장 목사님과 대화 시간에는 목사님의 신앙과 학문에 대한 조화와 천국일꾼으로서의 대학부의 역할들에 관해 말씀하시며 회원들의 질문들에 성심껏 답하셨다. 시종일관 어떤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큰 교회를 섬기는 큰 종의 겸손함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밤의 Festival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회원간에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으로 수련회의 아름다운 끝을 장식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대학부에 성령을 좇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심들이 열매 맺길 소망해본다.

정검다려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조 윤 재
(목사, 제11교구 지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흔히 반대의 질문을 받는다. 또 많은 성도들이 전도할 때 반대 질문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전화를 통해서나 혹은 직접 찾아와서 불신자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 반대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성경을 결코 넘어지려고 하는 애매한 질문인 경우가 많다. 그 일례를 들면, 하나님이 만일 전지전능하시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만들었으며 왜 막지를 못했느냐? 등등 이런 유의 질문을 해놓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유심히 노려보는 경우를 본다.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미리 알아둔 지식을 가지고 청산유수같이 잘 대답을 한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감에 차서 '뭐 또 성경에 모르는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물어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해 드리죠' 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하겠는가?

물론 우리가 반대 질문에 답변할 때 자신있게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다 아는 것처럼 논쟁을 일삼다가 그 사람을 실망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한동안 성경을 많이 읽을 때나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많이 연구할 때는 자신감에 차서 '성경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설명하는 방대한 책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경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충분한 책이지만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다 대답하는 백과사전이 절대로 아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 본다(고전 13:12). 우리는 아무리 자신있게 알고 말한 다 할지라도 지극히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며, 내가 천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결코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논쟁하는 것은 거짓말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우리는 솔직하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는 대답일 것이다.

우리의 자세는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 성경은 구원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대답하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자신있게 답변해야 하겠지만 성경이 답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대답하는 것은 잘못된 대답일 것이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된 구원의 진리의 복음만 증거해서 주어진 기회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몰두해야지 쓸데없는 논쟁만 하다가 영혼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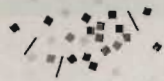
1. 말씀을 전하실 목사께
성령충만 주옵소서.

2. 내가 초청한 영혼들이
모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3. 우리 모두가 민족과
세계를 향한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일: 10. 1(화) ~ 15(토)

'94 예수사랑 큰잔치



예수의 사랑으로
세기를 영접하자!

경기도청원교회

▲ 늘 가까이 두고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기
도해야 할 기도제목이 있는 책갈피가 나왔다.

고등부 여름수련회 범사에 그에게까지 성장하자

7월 27- 29일, 충현기도원에서

고등부의 여름수련회가 7월 27일(수)
-29일(금)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고등부지
도 윤삼중 목사를 강사로 '범사에 그에게
까지 성장하자'는 주제하에 모인다.

고등부는 학기초에 전도운동을 전
개하여 200여명의 신입학생을 맞고 있어
이번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여 하반기는
'성장과 양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
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수련회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수련회에는 전 학생과
교사가 공동체적 일치감을 갖고 '성장
과 양육'에 주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새롭
게 하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김창인 목사 :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
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성종 목사 : 대내외적으로 말씀 사역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며 증거되어지
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2. 충현의 교회학교가 여름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시며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이 은혜충만, 성령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드려 회개하고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비를 내려 주시고 이 땅에 안정을 주시옵소서.
4. 여름철에 충현의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제2교육관 공사과 길림성 기독교
신학원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5.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사역인 문서선교, 외향선교, 유학생 및 교포자녀
들의 선교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가족들의 생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 하기전도를 다녀와서 ◆

전도를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주 순 회
(집사, 제1교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주님의 충성스
러운 일꾼으로 불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훈련과 연단을 쌓게 한 뒤에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전도자로 보내신
다. 이때에 내가 원하던 아니하던 하나님
의 훈련은 계속되며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이렇게 자라
날 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하여 우리
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고 늘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금번 하계 농어촌전도대의 일
원으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
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그 귀한 사명
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
을 갖고 전도대의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
다.

뒤를 돌아볼 줄도 모르고 오직 앞으
로만 전진하려는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
보게 하셔서 잘못을 고치게 하시고, 회개
와 감사할 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노엽
게 하면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도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싸매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므로' 주님의 놀라
운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대원
10명은 말로만 듣던 강원도 정선의 봉정
교회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
하였지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비포장
도로의 한없는 여정은 즐거운 마음은 사
라지고 고해 그 자체였다. 그러나 대부분
의 대원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배경을 만끽하다보
니 어느덧 봉정리교회에 도착했다.

우리는 도착예배를 드리고 짐도 제대
로 풀지도 못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인사
를 나눌 겨를도 없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금 오다가 그칠지
확면서 사면에 아름다운 산으로 싸여있
는 봉정리의 아름다운 산 경치와 언덕너
며 땀샘겨리는 강물을 내려보면서 백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
다. 이렇게 되니 전도는 고사하고 지역사
람들에게 오혀려 짐이 되고, 주민들을 불
안하며 초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우
리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보는 것같이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비가 계속 쏟아지게 되니 하나님
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전
도는 고사하고 오혀려 마음이 침수되고,
침도 못싸고 피난도 못가는 형편이 되었
으니 말로만 듣던 고립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말이 안나오고 기각 막히
는 실정이었다. 드디어 강물이 불더니 땅
과 다리의 연결부분의 땅 약 30여미터가
그만 물로 쓸려갔으며 전신주가 넘어지
면서 전깃줄이 끊어지더니 전기도 들어
오지 않는 암흑대가 되어버리게 되어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촛불예배를 드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주민 중에
는 침수되지 않은 높은 지대로 피난을 해
야한다며 집을 챙기기도 하였으며 교회
로부터 10여미터 앞까지 물이 차 올라오
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고 메스컴을 통해
서만 보고 듣던 고립, 침수 등의 의미를
실감하기 시작한 우리 대원들은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도리밖에 없
음을 알게 되었고 삼삼오오 예배당으로
모여 자연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
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환난날에 부르짖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
와께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전도를 위해 준비하지 못했던, 기
도하지 못했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여
얼마나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는 대원 모
두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왔던 나는
남편은 과사다. 바깥강사하여 산으로 빠
다로 빠니 해역로 야단들인데 나는 남편
과 함께 강원도 산골에 와서 죽게 된다면

그것도 전도하기 위해 왔다가 죽는다면
영광중의 영광이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
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죽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 이것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
는 죽기를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
었다. '하나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이렇게 하여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
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이
비를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애원하
며 간구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원 10명은
정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 이
때에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라도 매달리
자는 생각이 들어 우리대원 모두는 이를
실천하기로 하고 우리의 그날 먹을 것을
주민 모두에게 적지만 다음날 나누어 주
기로 하였다.

저녁의 부흥회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못했고 강물이 줄어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형편이나 참으로 마음
이 저리고 아팠다. 밤 11시경이 되니 하
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인지
몰라도 강물의 수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소식과 광경
을 듣고 보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다음날의 마지막 날 아침은 비가 온
뒤의 하늘이라서인지 청명 그 자체였고,
공기는 산소가 전부인 것 같았다. 우리는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많은 대원이 금식)
하고 2개조로 나누어 전 지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게
되었고 어떻게 되니 주민들과 우리대원
들은 하나가 되었으며 기쁨의 얼굴로 모
두가 변해었다. 저녁의 마지막 부흥회는
대성황을 이루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신을 하게 되었으며 10시경에 예배가

끝났지만 12시가 넘어도 집에 갈 줄도 모
르고 우리에게 슬픔대신 찬송을 주신 하
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
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부리며 함께
박수치고 울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
니 이것이 사랑이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십
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날 우리는 안 떨어지는 발길을
서울로 향해야만 했다. 물론 다리가 끊어
졌으니 차도 놓고 와야 했고 걸어가야 하
니 짐도 최대한 줄여야만 했다. 서울을
향한 출발예배를 드리고 다리가 없었던
30여년전에 다녔다는 산속길을 교회 집사
님의 안내로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말
이 등산이지 이것은 영화속의 정글을 가
는 것 같기도 했으며 낮으로 앞에서 나무
를 쳐가며 길을 만들어 가자니 한편으로
는 한심스럽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
였다. 그러나 전도하러 오지 않았다면 어
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길을 넘고 넘어 도착해보니 여량이라
는 역이 있는 곳이었다. 서너시간 이상
걸은 셈이었다. 조금 있으니 고립소식을
새벽예배를 통해 들은 어느 집사님이 봉
고를 물고와서 우리는 자리가 모자라 스
치로풀을 깔았지만 기쁨으로 상경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입으로,
말로만 간단하게 되는 것일까? 입으로 말
로만 말할 수 없으며 전도도 앞으로 말
로만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
다.

훈련과 연단이 없는 믿음의 생활, 인
내와 지구력이 없는 신앙생활, 은근과 끈
기가 없는 우리의 생활..... 아무리 어렵
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경 속의 생활이
라 하더라도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하
나님께의 바른 관계만을 유지할 수 있다
면 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없음은 말할 것
도 없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며 하계농
어촌 전도기를 마감한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기회를 주신 하
나님께 감사드리고 전도위원회 그리고
고립된 것을 아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
들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우리 대원 모두
에게 애정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원고는 지난해 강원도 봉정교회
로 하계전도를 나갔던 주순회 집사의 글
입니다)